

오케스트라 활동이 중학생의 폭력성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Orchestral Activity on the Violence and Depression of Middle Schoolers

최진호* · 추상희**

Jinho Choi · Sanghee Choo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S 중학교 학생 중,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는 그룹과 어떠한 음악활동도 하지 않는 그룹을 대상(n=126)으로 오케스트라 활동이 중학생들의 폭력성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 지역 중학교에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을 중심으로 연구 참여 의사를 의뢰한 결과, 참여를 허락해 준 S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케스트라 그룹과 음악활동을 하지 않는 일반그룹으로 나누어 폭력성과 우울감 정도를 측정·비교하였다. 모든 연구는 사전에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연구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는 그룹이 어떠한 음악활동도 하지 않는 그룹에 비해 폭력성($t=-3.92$, $p>0.5$)과 우울감($t=-3.34$, $p>0.5$)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학생들의 폭력성과 우울감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53$). 셋째, 오케스트라 활동에 대한 단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케스트라 활동의 긍정적 효과로 '스트레스 해소'나 '정서적 안정'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연주가 좋아서', '음악적 능력 향상' 순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오케스트라 활동, 폭력성, 우울감, 정서적 안정, 음악교육, 중등교육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the effect of orchestra activities on violence and depression among the students at S Middle School in the Gyeonggi area, comparing a group that participates in orchestra activities(n=74) and a group that does not engage in any musical activities (n=52). To select participants, we asked middle schools in Seoul and Gyeonggi area to participate in the study, focusing on schools that operate orchestras. As a result, S Middle School agreed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and every study procedure was conducted by the researcher by visiting the school in person with the consent of the school, parents, and students in adv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group performing orchestral activities was found to have significantly lower levels of violence ($t=-3.92$, $p>0.5$) and depression ($t=-3.34$, $p>0.5$) than the group not engaging in any musical activities. Second, there was a strong correlation between violence and depression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r=.53$). Third, participants pointed out that the satisfaction level of orchestra was high, and 'stress relief' and 'emotional stability' were the most effective results of the orchestra's activities, followed by 'enjoying performance' and 'improving musical ability'.

Key words: orchestra activities, violence, depression, emotional stability, music education, secondary education

* First author, E-mail: jhc0028@cau.ac.kr

Associate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4712 Seodongdaero, Daedeok, Anseong, Gyeonggi, Korea

** Corresponding author, E-mail: flutesh@cau.ac.kr

Lecturer, Chung-Ang University, 4712 Seodongdaero, Daedeok, Anseong, Gyeonggi, Korea

Received: 31 May 2024, Reviewed (Revised): 2 July (7 July) 2024, Accepted: 30 July 2024

© 2024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I. 서론

교육부가 2023년 12월 14일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과 가해 응답률 모두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폭력 목격 응답률도 지난해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Education, 2023). 이러한 학교폭력은 해가 지나갈수록 그 유형이 다각화되고 있는데,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 상해, 감금, 협박, 공갈부터 성폭행, 따돌림, 언어적 폭력까지 다양하다. 특히, 디지털 세대로 불리는 현재 청소년들에게는 온라인과 핸드폰을 이용한 사이버 언어폭력까지 더해져 그 심각성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폭력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중학생들이 처해 있는 삶과 관련이 있다. 중학생들은 급격한 신체적 변화를 겪으며 어른에 가까운 성장을 이루지만, 정신적 발달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어른도 아이도 아닌 어중간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여기에 대학입시와 같은 학업스트레스까지 더해져 심한 스트레스와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이러한 스트레스와 긴장을 해소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정신적 문제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 중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우울증과 폭력성이다.

한편, 많은 선행연구결과들은 다양한 음악활동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악기연주와 오케스트라 활동은 청소년들의 분노와 공격성 감소에 효과가 있으며,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여주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Kwon & An, 2012; Nöcker-Ribaupierre & Wölfl, 2010; Seung, 2013).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에서 오케스트라 활동에 참여하는 그룹과 어떠한 음악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는 그룹을 대상으로 각각 우울감과 폭력성 정도를 측정하여 오케스트라 활동이 중학생의 폭력성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문제 1. 오케스트라 활동이 중학생들의 폭력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오케스트라 활동이 중학생들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기의 폭력성과 우울감

‘질풍노도의 시기’라 불리는 청소년기는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도

기적 과정으로 한 사람의 전체 생애 주기에서 10세에서 20세 사이의 연령대를 포함한다. 이러한 청소년기에는 신체적으로는 성인에 해당할 만큼 성장하게 되지만,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발달과정에 속해있어 성인만큼 자기통제와 관리적 측면에서 미숙한 단계에 속한다. 특히, 청소년들은 사회와 학교로부터 성인에 비해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며, 대학 입시 준비로 인한 과중한 학업 부담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상황에서 많은 청소년들은 다양한 갈등과 긴장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는 청소년들은 매우 감정적이면서 기존 질서와 규범에 대해 도전적인 성향을 띠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때로는 이것이 폭력이나 일탈 행위로 표출되기도 한다(Agnew, 1992; Brezina, Piquero & Mazerolee, 2001).

청소년기의 폭력성은 만족하지 못하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타인이나 대물과 상관없이 언어적,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Han, Kim, Seol, Lim & Cho, 2014). 청소년기의 특성상 이런 폭력성은 학교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2023)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행, 파도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2023)가 조사한 학교폭력 실태를 살펴보면 그 정도와 횟수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며,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매년 증가하는 학교폭력의 유형이 다각화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지난 3년여에 걸친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는 이미 디지털 세대로 통하는 청소년들에게 스마트 폰과 온라인 활동을 통한 사이버 언어폭력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폭력을 불러왔다. 기존의 전통적인 폭력성은 주로 신체를 상하게 하는 형태로, 폭행의 흔적이 남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패턴을 지니고 있는 반면, 사이버 언어폭력은 한 사람의 정신과 인격을 말살하며, 그 피해정도가 신체폭력에 비해 더 크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피해자가 결국 자살과 우울증에 이르게 되고 심지어는 범죄에 빠져들게 되는 등, 청소년들에게 일반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Lee, Won & Park, 2016).

한편,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또 다른 형태의 심각한 정신적 문제로 우울증을 들 수 있다. 청소년기의 우울감은 자신의 신체변화에 대한 불만족과 주변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무엇보다 입시를 준비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압박과 긴장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Shin, 1998). 또한, 학교에서 나타나는 교우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는 청소년

년기의 또래 집단에 대한 동일시와 거기로부터 멀어질 때 나타나는 열등감이 합쳐질 때,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Mun & Jang, 2021). 우울감이 높은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낙심하게 되거나, 자신감이 결여되고 슬픈 감정과 무기력, 그리고 공허함으로 삶에 대한 목표가 사라지고 급기야는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살충동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Kim, 2015; Seok, 2011; Shin, 1998). 문제는 대부분 청소년기의 우울감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울증에 대한 조기 발견이 어렵고 그대로 방치되다가 자살이나 폭력적 행동과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Garmezy & Rutter, 1983; Mun & Jang, 2021).

우울감이 내면을 벗어나 외부로 표출되는 경우에는 반항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이거나, 가출, 음주, 흡연, 성문제 등의 반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Seok, 2011). 특히, 이러한 반사회적 행동이 과하게 되면 타인을 향한 공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기의 우울감이 폭력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Cho, 2023). 다시 말하면, 우울감과 폭력성 모두,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정서적 불안이나 정신적 문제가 밖으로 표출된 것으로 이러한 청소년기의 우울감과 폭력성은 비행이나 폭력, 자살률 증가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이러한 문제행동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Kim, 2015; Roh, Jeon, Lee, Lee & Han, 2007; Shin, 1998).

이러한 청소년의 우울감과 폭력성을 감소시키고 문제행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 차원에서 청소년들이 소속감을 가지도록, 또래 집단과 함께 하는 학교 활동에 참여하게 하여 또래와의 관계 지향적 상호작용, 인내심, 즐거움의 공유 등 긍정적 감정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Lee, Won & Park, 2016; Mun & Chang, 2021; Yang, 2012). 실제로, 음악에서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와 같은 예술적 활동은 자신의 가치, 자아 존중감, 학업성취 등의 긍정적 요소들은 높여주고, 폭력성, 우울, 불안, 비행 등의 부정적인 문제의 요소들은 낮추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owery, 1968; Lathom, 1980).

2. 오케스트라 (음악)활동과 청소년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정서적 불안과 폭력성, 그리고 우울증 같은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 음악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음악활동은 분노와 공격성 감소에 효과가 있으며,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여주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Kwon & An, 2012; Nöcker-Ribaupierre & Wölfl, 2010; Seung, 2015). 실제로 악기연주와 오케스트라 활동은 학생들에게 자긍심과 자아개념을 향상시켜주는 것으로 연주활동을 통해 참여

학생들의 만족감과 자아존중감을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Howery, 1968; Lathom, 1980).

여러 악기가 모여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 나가는 음악적 경험은 청소년들에게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데, 오케스트라라는 하나의 사회적 모임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가지게 하여 또래 집단에 민감한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어 주는데 효과가 있다. 실제로 이러한 음악적 교류는 심리적으로 우울하고 불안한 감정을 지닌 청소년들에게 내적 상처를 치유하고 정서적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Yun & Chong, 2019). 이러한 점에서 Lee(2021)는 청소년들의 사회성 향상과 우울감 감소를 위해 음악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오케스트라 활동을 포함한 음악활동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음악이라는 매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음악 자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학생들로 하여금 음악활동에 대한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게 하며 자신의 억눌린 감정을 분출시키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도록 한다. 이러한 ‘음악적 카타르시스’를 경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결과들은 음악활동이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안녕감, 그리고 사회적 유대감을 높이게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Howery, 1968; Lathom, 1980; Lee, 2023; Nöcker-Ribaupierre, & Woelfl, 2010; Seung, 2013; Yun, & Chong, 2019). 실제로 송지예(Song, 2015)의 연구에 의하면, 오케스트라 활동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 적응력을 높이며, 교유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에서 오케스트라 활동에 참여하는 그룹과 어떠한 음악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는 그룹을 대상으로 각각 우울감과 폭력성 정도를 측정하여 오케스트라 활동이 중학생의 폭력성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S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n=140)으로 오케스트라 활동이 폭력성과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현재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는 그룹과 어떠한 음악활동도 하지 않는 그룹을 구분하여 각각 폭력성과 우울감 정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확률적 표집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중학교가 제한적이며, 또 적극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참해줄 학교를 선정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비확률표집인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 중 지원자 표집(volunteer sampling)을 실시하였다. 지원자 표집은 “연구에 참여를 거부하는 연구대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법적 윤리적 문제 때문에 연구대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구”(Seong & Si, 2011, p.99)인 경우 사용하는 연구방법이다.

단, 연구대상이 되는 학교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삼았다. 첫째, 오케스트라 운영을 10년 이상 지속하였으며 둘째, 그 인원이 최소 50명 이상인 학교일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유한 서울의 강남이나 환경이 너무 어려운 지방과 같은 특정 지역은 배제할 것 등이다.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내세운 이유는 본 연구의 특성 상, 학교 오케스트라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어야 하며 지역적으로 치우침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에 맞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중학교들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 의사를 타진하였으며, 이 중 연구에 참여를 허락해 준 경기 지역의 S 중학교를 최종 연구대상 학교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이 된 S중학교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시간씩 정규연습을 가졌으며, 매일 아침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한 시간 이상 연습을 시행하고 있었다. 또한 지역 문화행사나 오케스트라 경연대회에 주기적으로 참석하여 활발한 연주활동을 시행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S 중학교의 음악 선생님과 협의하여 학교에서 연구에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오케스트라 전체 학생들에게 인터뷰와 설문을 시행하였으며, 개인적 환경은 비슷하지만, 과거와 현재 모두 오케스트라를 포함한 다른 음악 활동을 하지 않는 같은 학교 학생들을 비교대상으로, 오케스트라 그룹과 동일한 인터뷰와 설문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중학생 126명(오케스트라 그룹: 74명; 비음악그룹: 52명)이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의 표집기간은 2024년 5월 3일부터 2024년 5월 10일까지 약 일주일여 걸쳐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이중 불성실한 응답으로 판단되는 10개의 데이터를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126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연구결과에 반영하였다.

다음의 <Table 1>은 오케스트라 활동그룹의 악기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으로 먼저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 43명(58.1%), 여자 31명(41.9%)으로 남자학생이 여자학생보다 많았으며, 학년은 1학년 41명(55.4%), 2학년 18명(24.3%), 3학년 15명(20.2%)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악기 시작 나이는 14세에서 16세가 33명(44.5%)으로 가장 많았으며, 8세에서 10세(31%), 8세 미만(13.5%), 11세에서 13세(10.8%)순으로 나타났다. 악기 배운 기간을 살펴보면 1년 미만이 43명(50%)으로 가장 많았으며, 1년에서 2년 15명(20.3%), 3년 이상10명(13.5%), 2년에서 3년 6명(8.1%)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악기를 배운 기간은 1년 미만이 58.1%로 가장 많았으며, 1년에서 2년 20.3%, 3년 이상 13.5%, 2년에서 3년 8.1%로 나타났다. 오케스트라 활동 기간을 살펴보면 1년 미만 51명(68.9%)으로 가장

많았으며, 2년에서 3년 13명(17.5%), 1에서 2년 10명(13.5%)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학생들이 연주하는 악기의 종류는 목관악기 30명(40.5%), 현악기 23명(31.1%), 금관악기 17명(23%), 타악기 4명(5.4%)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생들은 절반이상인 51명(68.9%)이 개인악기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23명(31%)은 학교악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Factor	Content	N	%
Gender	Male	43	58.1
	Female	31	41.9
Grade	First	41	55.4
	Second	18	24.3
	Third	15	20.2
The age to start learning a musical instrument.	Under 8	10	13.5
	8-10	23	31
	11-13	8	10.8
	14-16	33	44.5
Period of instrumental education	Under a year	43	58.1
	1-2	15	20.3
	2-3	6	8.1
	Over 3 years	10	13.5
Period of orchestral Activity	Under a year	51	68.9
	1-2	10	13.5
	2-3	13	17.5
Instruments	Strings	23	31.1
	Woodwind	30	40.5
	Brass	17	23.0
	Percussion	4	5.4
How to own a musical instrument	Personal	51	68.9
	School	23	31

2. 본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경기도의 S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케스트라 활동이 폭력성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기에 본 연구결과가 다른 상황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3. 검사도구

본 연구의 검사도구는 청소년의 폭력성 측정을 위한 15문항, 우울감 측정을 위한 13문항, 그리고 개인적 배경에 관련한 10문항으로 총 38문항으로 제작되었다. 먼저 중학생들의 폭력성을 측정하기 위한 첫 번째 부분은 곽금주(Kwak, 1992)이 Dodge(1980)의 연구를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춰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15문항을 사용하였는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91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학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우울감을 측정하기 위한 두 번째 부분은 Zung, Richards와 Short(1965)가 개발한 자가 평정 우울증 척도(SDS: Self-rating Depression Scale)를 문경은과 장미영(Mun & Jang, 2021)이 국내 실정에 맞도록 수정 보완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우울감은 정서적 우울, 인지적 우울, 신체적 우울, 행동적 우울의 4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3문항으로 제작되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선행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크론바흐 알파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0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본 연구의 폭력성과 우울감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크론바흐 알파 .93으로 본 연구의 검사도구의 신뢰도가 매우 높은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배경(성별, 학년, 악기를 시작한 나이, 악기를 배운 기간, 오케스트라 활동기간, 연주악기, 악기소유형태)과 오케스트라 활동의 만족정도(백분율), 그리고 오케스트라 참여 동기와 효과를 묻는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Table 2> Reliability of the violence and depression items

Type	Item	Survey content	α
Violence	1	I tend to easily get involved in fights with my friends.	.91
	2	I often initiate fights or make snide	
	3	I am good at pushing or shoving other friends.	
	4	I tend to break things or handle them roughly.	
	5	I have taken someone else's money or belongings, even as a joke.	
	6	I have played pranks on younger students or boys and girls on the street.	
	7	I have forced a friend or another student to do homework or tutoring.	
	8	I have forced a friend or another student to run errands.	
	9	I have persistently bullied a friend or other students.	
	10	I have forcibly taken things or money from friends or other students.	
	11	When I am angry, I tend to tear up books or other things.	

<Table 2> Continued

Type	Item	Survey content	α
	12	When I am angry, I tend to throw or break books or other items.	
	13	When I am angry, I may not actually hit others, but I feel the urge to do so.	
	14	When I am angry, I feel the urge to throw or break things, although I don't act on it.	
	15	At times when angry, I have thoughts of wanting to kill someone.	
Depression	1	I often feel sad.	.90
	2	I am disappointed in myself.	
	3	I often feel guilty	
	4	I am critical of the future.	
	5	I feel like I am a failure.	
	6	I am not satisfied with daily life	
	7	I get angry easily	
	8	I lack interest in other people.	
	9	I get tired easily	
	10	I have recently lost my appetite.	
	11	I struggle to make decisions.	
	12	I have trouble sleeping as usual.	
	13	I have become more worried about my health.	
Total	28		.93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오케스트라 활동이 중학생의 폭력성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PASW Statistics 24.0(SPSS 24.0 for Window)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검사 도구의 문항 중, 중학생들의 폭력성과 우울감을 측정하기 위한 38개의 문항은 집단 간 비교를 시행하였기에 t-test를 사용하여 집단 간 차이를 비교·분석하였으며, 마지막 부분인 개인적 배경에 관한 10항목들은 빈도수를 사용하여 백분율(%)과 집단별 평균으로 환산하여 보고하였다.

IV. 연구결과

다음의 <Table 3>은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는 그룹과 어떤 음악 활동도 하지 않는 그룹 간 폭력성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것으로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는 그룹의 폭력성 평균은 22.43, 표준편차는 .913이며, 음악 활동을 하지 않는 그룹의 평균은 29.75, 표준편차는 11.72로 나타났다. 또한, 오케스트라 활동 유무에 따른 중학생들의 폭력성 차이에 대한 t통계 값은 -3.92, 유의확률은 .00로 유의수준 .01에서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는 그룹과 아닌 그룹 간 중학생의 폭력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3> Two independent sample t-test between orchestral activity and non-musical activities according to violence

Factor	Mean(SD)				t-value	sig.
	Yes	N	No	N		
Orchestra activity	22.43(.913)	74	29.75(11.72)	52	-3.92	.000**

**p>0.01

다음의 <Table 4>는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는 그룹과 어떤 음악 활동도 하지 않는 그룹 간 우울감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것으로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는 그룹의 우울감 평균은 27.02, 표준편차는 10.45이며, 음악 활동을 하지 않는 그룹의 평균은 33.27, 표준편차는 10.24로 나타났다. 또한, 오케스트라 활동 유무에 따른 중학생들의 우울감 차이에 대한 t통계 값은 -3.34, 유의확률은 .001로 유의수준 .01에서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는 그룹과 아닌 그룹 간 중학생의 우울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4> Two independent sample t-test between orchestral activity and non-musical activities according to depression

Factor	Mean(SD)				t-value	sig.
	Yes	N	No	N		
Orchestra activity	27.02(10.45)	74	33.27(10.24)	52	-3.34	.001**

**p>0.01

다음의 <Table 5>는 중학생 전체의 우울감과 폭력성 간의 적률상관분석 결과이다. 이를 분석해 보면, 중학생들의 우울감과 폭력성의 상관관계는 유의수준 .00 수준에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변수 간 상관계수는 .56으로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56, p>.01$). 이를 분석해 보면, 중학생들의 우울감이 높을수록 폭력성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5> Correlation between depression and violence level about middle schoolers

	Depression	Violence
Depression	1	.559**
Violence	.559**	1

** $p>.01$

다음의 <Table 6>는 오케스트라에 참여하는 중학생들의 오케스트라 활동 참여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한 것이다. 먼저, 오케스트라 참여 중학생들의 오케스트라 활동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100점 만점에 78.65점($SD=22.4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간값(Median)은 87.5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가장 많은 점수인 최빈값이 100점인 것으로 전체 74명의 오케스트라 단원 중 28.4%에 해당하는 21명이 오케스트라 활동의 만족도에 만점인 100점을 부여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오케스트라에 참여하는 중학생들의 오케스트라 활동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Satisfaction level of orchestral activity

N	Mean	SD	Median	Mode
74	78.65	22.43	87.5	100

다음의 <Table 7>은 오케스트라에 참여하는 중학생들의 오케스트라에 참여하는 동기 요인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이다. 먼저, 오케스트라 참여 중학생들이 오케스트라 활동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오케스트라 활동 자체가 좋아서(37명; 29.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좋아서(18명; 14.2%), 취미활동으로(17명; 13.5%), 특정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좋아서(16명; 12.7%)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족이나 부모님 권유(4명; 3.2%)나 멋있어 보여서(2명; 1.6%),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멋있어 보여서(1명; 0.8%), 선생의 권유로(1명; 0.8%)는 상대적으로 낮은 참여 동기로 나타났다.

<Table 7> Reason for orchestral participation (Multiple responses)

Reason for orchestral participation	N	%
Because I enjoy orchestra activities	37	29.4
Because I love playing music.	18	14.2
As a hobby.	17	13.5
Because I enjoy playing a specific instrument.	16	12.7
Due to the encouragement of friends.	15	11.9
Due to the recommendation of a teacher.	8	6.4
To pursue it as a major.	7	5.5
Because of the encouragement from my family or parents.	4	3.2
Because it looks good.	2	1.6
Due to the recommendation of a senior.	1	0.8
Because it looks fun.	1	0.8
Total	126	100

다음의 <Table 8>은 오케스트라에 참여하는 중학생들이 생각하는 오케스트라에 참여의 효과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이다. 먼저, 오케스트라에 참여하는 중학생들이 생각하는 오케스트라 활동의 가장 중요한 참여효과는 ‘정서적 안정(34명; 26.4%)’을 선택하였으며, 연주하는 것에 보람을 느낄 수 있음(28명; 21.7%), 음악적 능력이 향상됨(22명; 17.1%),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할 수 있음(18명; 14%), 친구나 선후배와의 관계가 좋아짐(14명; 10.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음(8명; 6.1%), 적성을 찾아 전공을 할 수 있게 됨(5명; 3.8%)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참여효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Positive effects of orchestral participation (Multiple responses)

Positive effects of orchestral participation	N	%
Emotional stability (feeling at ease; stress relief; improvement of mood)	34	26.4
Feeling rewarded through playing music (sense of achievement after performances; learning stage etiquette; fascination with creating sound with multiple instruments)	28	21.7
Improvement of musical abilities (ability to learn various instruments; securing time to practice instruments)	22	17.1
Learning and experiencing various types of music (opportunity to spend time on a hobby; chances to perform on various stages)	18	14.0

<Table 8> Continued

Positive effects of orchestral participation	N	%
Building better relationships with friends, seniors, and juniors (opportunity to have conversations with different friends, seniors, and juniors; experiencing teamwork among members)	14	10.9
Feeling a sense of belonging and pride (feeling special and standing out from other students; developing a sense of responsibility and achievement)	8	6.1
Discovering one's aptitude (desiring to pursue a major (performer) through orchestra activities)	5	3.8
Total	129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S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n=126$)으로 오케스트라 활동이 폭력성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대상이 된 S 중학교는 오케스트라를 10년 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오케스트라 인원이 50명 이상이고, 너무 부유하거나 가난하지 않은 평범한 지역에 위치하여, 본 연구가 연구대상을 선정할 때 기준으로 삼았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케스트라 활동 그룹이 어떠한 음악활동도 하지 않는 그룹에 비해 폭력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3.92, p>0.5$). 이는 오케스트라 활동을 포함한 음악활동이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며, 분노와 공격성 감소에 효과가 있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한 선행연구(Nöcker-Ribaupierre & Wölfl, 2010; Seong, 2011)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둘째, 오케스트라 활동 그룹이 어떠한 음악활동도 하지 않는 그룹에 비해 우울감($t=-3.34, p>0.5$)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을 지닌 청소년들에게 내적상처를 치유하고 정서적 회복을 경험하게 한다는 윤주리와 정현주(Yun & Chong, 201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으며, 청소년들의 사회성 향상과 우울감 감소를 위해 음악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한 이지경(Lee, 2021)연구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였다.

셋째, 중학생들의 우울감과 폭력성의 상관관계는 유의수준 .0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변수 간 상관계수는 .56으로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분석해 보면, 중학생들의 우울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폭력성도 함께 높아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중학생들의 우울감을 낮춰주고 정서적 안정을 유도하면 중학생들의 폭력성을 함께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오케스트라 활동이 우울감을 낮추고 해소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이번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오케스트라와 악기교육, 그리고 다양한 음악활동을 강화시켜 중학생들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이루도록 해야 할 당위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이다.

넷째, 오케스트라에 참여하는 중학생들의 오케스트라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체 오케스트라 그룹의 74명 중 30%에 해당하는 22명이 만족도에 만점인 100점을 주었으며, 중간값이 85점이었고, 참여 대상 50% 이상이 90점 이상을 부여해 오케스트라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중학생들이 오케스트라 활동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케스트라 활동과 악기연주가 좋아서’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족이나 부모님의 권유’나 ‘선배들의 권유’는 상대적으로 낮은 참여 동기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분석해 보면, 오케스트라 등의 음악활동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일선 교육현장에서 음악교육을 강화시켜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여섯째, 오케스트라에 참여하는 중학생들이 생각하는 오케스트라 활동의 가장 중요한 참여효과는 ‘정서적 안정’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주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음악적 능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케스트라 활동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학생들 스스로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마음이 안정되고 정서적으로도 편안해 진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현재 한국 교육현장에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청소년의 우울감과 폭력성을 감소시키고, 문제행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케스트라와 악기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음악활동을 일선 학교에서 시행하고 음악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가 청소년들의 음악활동을 강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References

-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1), 47-88.
- Brezina, T., Piquero, A. R., & Mazerolle, P. (2001). Student anger and aggressive behavior

- in school: An initial test of Agnew's macro-level strain theor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8(4), 362-386.
- Cho, M. K. (2023).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depression, suicide, and self-harm in adolescents using crisis support institutions: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domestic violence. Master thesis, 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 Dodge, K. A. (1980). Social cognition and children's aggressive behavior. *Child Development*, 51(1), 162-170.
- Garmezy, N. E., & Rutter, M. E. (1983).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 In *Seminar on stress and coping in children, 1979, Ctr for advanced study in the behavioral sciences*. CA: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Han, S. C., Kim, H. W., Seol, I. J., Lim, Y. S., & Cho, A. M. (2014). *Adolescent psychology*. Paju: Kyoyookgwahaksa.
- Howery, B. I. (1968). Music therapy for mentally retarded children and adults. In E. T. Gaston. (Ed.), *Music in therapy* (pp. 10-51). New York: MacMillan Company.
- Kim, S. A. (2015). The effects of parent abuse, negative peer relations, and cell phone dependency on middle-school adolescent depression. *Forum for Youth Culture*, 43, 31-56.
-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2023).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Enforcement Date 15. Sep, 2023]. Retrieved May 10, 2024, from <https://www.law.go.kr/LSW/eng/engLsSc.do?menuId=2§ion=lawNm&query=School++Violence&x=0&y=0#liBgcolor0>
- Kwak, K. J. (1992). The impact of aggressive film on the aggressive script of the children and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5(1), 85-98.
- Kwon, S. A., & An, S. (2012). The study on music therapy programs for the perpetrators and the victims in school violence: Based on a perspective of psychodynamics.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23(3), 9-57.
- Lathom, W. (1980). *Role of music therapy in the education of handicapped children and youth*. Lawrence, KS: Ther National Association for Music Therapy.
- Lee, H. S. (2023). Musical activities of local orchestras from a positive point of view.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2(3), 75-107.
- Lee, J. K. (2021). Therapy for children • adolescent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and the effect on social skills and depression.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4), 1527-1548.
- Lee, S. W., Won, D. Y., & Park, S. H. (2016).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physical

- education, leisure sports participation, social connectedness, violence, and depression of adolescent.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65, 411-422.
- Ministry of Education (2023). The 2023 a survey on youth school violence. [Ministry 12-14(Thu) press release]. Retrieved May 2, 2024, from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02&opType=N&boardSeq=97458>
- Mun, K. E., & Jang, M. Y. (2021).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bonding, violence, and depression of Sports Participating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Sport*, 19(4), 283-292.
- Nöcker-Ribaupierre, M., & Woelfl, A. (2010). Music to counter violence: A preventative approach for working with adolescents in schools. *Nordic Journal of Music Therapy*, 19(2), 151-161.
- Roh, M. S., Jeon, H. J., Lee, H. W., Lee, H. J., & Han, S. K. (2007). Suicide-related behaviors among th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46(16), 35-40.
- Seok, B. K. (2011). Effects of Narrative Model Drama Therapy on Depression and Happiness in Depressed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Arts Therapy*, 11(1), 87-107.
- Seong, T. J., & Si, K. J. (2011). *Research methodology*. Seoul: Hakgisa.
- Seung, Y. H. (2013). A study of music program development for reducing and preventing school violence.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3(5), 565-586.
- Shin, J. E. (1998). A study on the psychosocial factors affecting of adolescent's depression. Master thesis, Ewha Woman University.
- Song, J. Y. (2015). A study on the effects of orchestra activity on school adaptation and schoolmate relationship in middle school to prevent school violence. Master thesis, Ewha Woman University.
- Yang, J. M. (2012). Research on the impact of group music activity on personality.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1(2), 227-255.
- Yun, J. R., & Chong, H. J. (2019). At-risk adolescents' inner resource through resource-oriented song psychotherapy. *Journal of Music and Human Behavior*, 16(2), 1-25.
- Zung, W. W., Richards, C. B., & Short, M. J. (1965). Self-rating depression scale in an outpatient clinic: Further validation of the SD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3(6), 508-515.